

# 걱정쟁이 열세 살

최나미 지음 | 정문주 그림



## 5, 6학년 중심 학년군

**국어:**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함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도덕:** 긍정적 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기른다.

## 3, 4학년

**국어:**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상우는 자신만이 집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빠가 삼 년 전에 집을 나갔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엄마와 누나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빠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집이 비정상적이고, 자신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비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상우는 겉으로는 밝게 지내지만 속으로는 늘 전전긍긍한다. 이 작품은 한 축으로는 개성이 강한 현대 가족의 모습을 비추면서, 다른 한 축으로는 열세 살 소년의 학교생활을 엮어 낸 성장 동화다.

## 학습 목표

이 책의 주인공은 제목처럼 열세살 입니다. 주인공은 가족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불만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3년 전 집을 나간 아버지를 생각하면 주인공의 처지가 특별한 듯하지만 사실 우리 교실의 열세 살을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별다를 것 없습니다. 현대 가족의 모습은 더 다양하고 더 개성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바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들은 다 그런대로 살아가고 있으리라 여겨 말도 못 했던 우리 집 이야기를 주인공의 걱정을 통해서 공감하고 조금은 그 무게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책은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어쩌면 스스로는 어른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나이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만한 감정을 소년이 겪는 가정과 학교 이야기를 통해서 섬세하게 풀어냈습니다. 6학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자신들이 겪는 갈등과 걱정을 친구와 선생님과 나누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합니다.

- 1 주인공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2 다른 사람의 걱정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3 자신의 걱정을 주제로 노래 가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 4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독전 활동

### 책 읽기 전 나눌 수 있는 질문과 활동

#### ▶ 동요 <걱정이다> 부르기

- 가수 백창우의 <걱정이다> 노래를 배워 부릅니다.
- 서너 명씩 모둠을 정해 자신의 걱정거리를 짧게 이야기 나누고, 각자 “걱정이다 걱정, 나는 \_\_\_\_\_ (해서) 걱정이다. \_\_\_\_\_ 에 가면 \_\_\_\_\_ 만 한다.” 부분 가사를 바꿉니다.
- 모두가 손을 잡고 둘러섭니다. 순서를 정해 차례대로 한 사람이 가운데로 터벅터벅 걸어가며 “걱정이다 걱정, 나는 \_\_\_\_\_ (해서) 걱정이다. \_\_\_\_\_ 에 가면 \_\_\_\_\_ 만 한다.”를 부릅니다.
-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같이 터벅터벅 걸어 들어갔다 나오며 “걱정이다 걱정, 나는 \_\_\_\_\_ (해서) 걱정이다.” 부분만 따라 부릅니다.
- 다음 사람도 자신이 바꾼 노래대로 똑같이 하면 나머지 사람이 따라 부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합니다.

▶ 걸으면서 노래 가사를 꼭 같이 따라 불러 줍니다. 걸지 않고 노래 가사에 맞게 행동을 바꾸어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 행동을 따라 합니다.

## 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 활동



## ➔ 등장인물 라인(인라인) 만들기

- 등장인물을 가능한 많이 뽑습니다. 동화책의 그림 속에서 등장인물의 얼굴을 찾아 붙이거나 이름을 적습니다.
- 등장인물의 관계도, 즉 인라인을 만들어 봅니다.
- 인라인을 보면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 ➔ 이 사람, 마음이 가요

- 인라인을 보고 가장 마음이 쓰이는 사람을 정합니다.
- 색종이를 별 꽃 모양 등으로 잘라 자기의 이름을 쓰고 자기가 정한 인물에 붙입니다.
- 왜 그 인물에 붙였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 의논하여 그 인물의 걱정이 드러나도록 <걱정이다> 노래 가사를 바꿔 봅니다.
- 바꾼 가사로 노래를 부릅니다.

▶ 칠판에 붙여서 모두가 같이 봐도 되고 모둠끼리 인물 딱지를 나누어 주고 관계도를 만들어도 됩니다.



## ➔ 『걱정쟁이 열세 살』의 &lt;걱정이다&gt; 노래 만들기

- 상우뿐 아니라 석재, 오폭별 등이 책에 나오는 열세 살에게는 모두 걱정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이 되어 <걱정이다> 노래를 만들어 봅시다.
- 서너 명이 모듬이 되어 각자 등장인물을 하나씩 고릅니다.
- 서로 의논하여 그 인물의 걱정이 드러나게 <걱정이다> 노래 가사를 바꿉니다.
- 바꾼 가사로 노래를 부릅니다.

## ➔ 땀글 달기

- 전지를 세로로 반 접어 길게 둡니다.
- 종이의 가장 윗부분에 각 모둠에서 정한 열세 살 아이의 고민을 '내 고민을 들어 주세요'라는 주제로 글을 씁니다.
- 고민이 적힌 긴 종이를 바닥이나 칠판에 붙입니다.
- 매직을 나누어 주고 땀글 달기의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각 모둠에서 적어 놓은 고민을 읽어 보고 해 주고 싶은 말이 생각나면 가명으로 땀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두 줄로 적습니다.
-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써 놓은 땀글을 읽고 다시 그 밑에 땀글을 달아줍니다.
- 적당히 땀글이 채워지면 칠판에 붙여 땀글들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 ➔ 두루마리 휴지로 내 고민 풀어내기

- 한 사람씩 두루마리 휴지를 갖습니다.
- 집들이할 때, 개업식을 할 때, 두루마리 휴지를 선물로 사 가는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걱정 없이 술술 잘 풀리라고).
- 우리 걱정도 술술 잘 풀리게 이 두루마리 휴지에 우리 걱정을 담아 봅니다.
- 휴지 겉면을 쌀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자릅니다.
- 직사각형 종이에 자기의 고민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 다 그린 종이를 휴지를 감쌉니다.
- 서로의 휴지를 보며 어떤 고민을 그렸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 고민이 술술 잘 풀리길 바라면서 휴지 탑을 쌓아 올립니다.

